

광양시, 폐교 활용한 치매쉼터 설치...사업비 5억 원 편성

진상초황죽분교장에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중

5명 전담인력 채용돼 분야별 치매통합서비스 제공

60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1위는 알이 아니라 '치매'라고 한다. 2017년 치매국가책임제가 도입되면서 전국에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국가차원의 치매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놓여진 지역 곳곳까지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광양시는 지난해 전라남도의 폐교를 활용한 치매쉼터 설치 공모사업비 7억 원을 확보하고, 올해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해 진상초황죽분교장(건물 796.25㎡, 부지 6,743.2㎡)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하고 11월 초부터 운영하고 있다.

현재 간호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운전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5명의 전담인력이 채용돼 분야별로 전문적인 치매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치매어르신들의 경우 인지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장비를 이용한 인지재활훈련, 도구를 이용한 작업치료활동, 건강유지관리 서비스가 제공되며, 치매환자 집

집마다 방문하여 1:1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치매환자 이외 일반 어르신들도 치매조기검진, 인지자극훈련, 치매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 외 추억을 환기시키는 영화관,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시설이 갖춰져 있어 농촌어르신들이 요양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방문하시는 치매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진상면과 옥곡면



지역에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인근 진월면, 다압면까

지도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광주복지재단, 코로나 일상 광주복지실천사례 공모 결과 발표

달라진 사회복지서비스 현실·변화 가능성 담겨

연번	시상구분	유형	기관명	사업명
1	시상상	청소년	광주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교밖청소년 온라인 대외활동 참여비용 방구석 온(On)리픽
2	시상상	지역	인애종합사회복지관	저소득취약계층 코로나19 대응능력 향상 위한 안전관리교육지원사업
3	시상상	장애인	광주광역시장애인복지관	외출이 어려운 지역사회를 함께 지지함을 보여주는 '장애인대중활동'
4	시상상	행정	광산구청 복지지원과	주유관들이 만드는 복지TV, 복지급여서비스 홍보영상 제작
5	시상상	노인	광산구월북나루노인복지관	코로나19 대응 프로그램 운영 및 '상지오공물레스'

시상상 수상작 목록.

광주복지재단(이하 '재단')은 지난 9월 22일부터 11월 6일까지 진행된 '코로나 일상, 광주복지실천사례 공모전'에 대한 최우수 사업기관을 지난 13일 선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선제적 대응으로 복지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우수 복지실천사례를 발굴하고 지역사회에 전파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공모전에는 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사회복지현장과 행정 등 다양한 복지영역에서 32편의 실천사례가 접수되었다.

재단은 현장, 학계, 언론, 행정 등으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상상 및 재단 대표이사상 수상 기관 총 10개소를 선정했다.

시상상으로 선정된 5개소는 '방구석 온(On)리픽'을 개최한 '광주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포함해 '인애종합사회복지관', '광주광역시장애인복지관', '광산구청 복지지원과', '광산구 행복나루노인복지관'이다.

공모전에 접수된 실천사례에는 시설 중심의 집단서비스에서 지역사회와 가정 중심의 개별화된 서비스로의 전환, 실천현장의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개발되고 확장되는 비대면 서비스 등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모습들이 담겨있었다.

광주복지재단의 김백수 사무처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복지현장의 서비스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 다양한 실천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하려 했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영암군, 심리건강 돌봄 키트 제공



영암군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사회적 활동의 제약 받고 있는 청소년들의 심리 건강 증진을 위한 마음돌봄키트를 제공하

였다. 영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돌봄키트는 상담 및 복지 서비스 종결 또는 선도 프로그램 종결 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준비하였으며,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와 손세정제 및 핸드크림, 정서적 힐링을 위한 식물 토 피어리, 간식 등으로 구성되어 삶의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영암=조대호 기자

담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생명존중교육' 진행

관내 초등학교 대상...스트레스 완화·생명존중 문화 배워

담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17일까지 관내 초·중·고교의 소중함을 인지하고 청소년의 자살예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생명존중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주변 친구에게 지속

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적절한 도움을 요청해 청소년의 극단적인 선택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관내 초·중·고교 76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교육의 주요 내용에는 나의 소중한 이유 탐색하기, 생명을 표현하

고 돌보기, 힘들 때 도움 요청하기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생명을 표현해보는 '소금병 만들기'는 친구들의 마음건강을 챙기는 생명존중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참여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생명존중에 대해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광산구, 복지사각지대 1인 가구 지원

광주광역시 광산구(구청장 김삼호)가 23일부터 복지사각지대 추정 중장년 1인 가구 1만 세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맞춤형 상담·지원에 나선다.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 불안정성, 2차 베이비붐 세대인 1968~74년생의 중·장년화 등으로 1인 가구 고립이 우려된다고 판단한 광산구가, 선제적으로 이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 이번 광산구의 실태조사 대상은, 광주 가계소득생계비 조사,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조사, 광산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구별 현황 자료 분석 결과, 가족·사회와 교류가 안정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9,454가구다. 이는 광산구 전체 1인 가구인 56,794세대의 약 17%에 달한다.

임형택 기자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의 청정자연과 어우러져 탄생한 건강한 우리 식품을 만나보세요